

밀집수비 뚫기 총공격... '골 소나기' 기대하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 미얀마와의 경기를 위해 소집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G조 미얀마전 예상 선발 라인업
12일 밤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MBC 중계)

FW	석현준
MF	구자철, 기성용, 이재성, 남태희
DF	김진수, 김영권,곽태휘, 장현수
GK	김승규

4-1-4-1 /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오늘 러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

6월 공격적 전술에도 2골 얻는데 그쳤지만 빠른 시간에 선취점 올려 대량 득점 올린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미얀마와의 5차전 홈 경기(12일)를 대승하기 위한 필승 전략을 짜는데 돌입했다.

대표팀은 지난 10일 손흥민(토트넘)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파의 가세로 전원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슈틸리케 감독은 평소 4-2-3-1 전술을 많이 써왔지만, 미얀마가 수비에 치중할 것에 대비해 공격적인 4-1-4-1 포메이션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호는 지난 6월 미얀마(원정), 9월 라오스(홈) 등과의 경기에서 4-1-4-1 전술로 공격에 무게를 두고 득점을 노려왔다.

미얀마전에서는 두 골(2-0)밖에 넣지 못했지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라오스

전에서는 8-0으로 승리했다. 까다로운 상대였던 레바논(원정)전에서도 4-1-4-1로 완승(3-0)을 거두고 중동 원정 징크스를 깨는 등 이제는 4-2-3-1 만큼 익숙한 전술이 됐다.

원톱에는 지난달 쿠웨이트전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쳐 슈틸리케 감독의 아쉬움을 샀지만, 다시 부름을 받은 석현준(24·비토리아FC)의 기용이 점쳐진다. 석현준은 지난 9월 레바논전과 10월 쿠웨이트전 모두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다.

좌우 날개에는 구자철(26·아우크스부르크)과 남태희(24·레퀴아)의 포진이 예상된다. 구자철은 쿠웨이트전에서 결승골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과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은 부상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 교체 출전이 관측된다. 예상보다 미얀마의 골문이 열리지 않

으면 조기 투입될 수도 있다. 중앙에는 캡틴 기성용(26·스완지시티)과 호흡을 맞췄던 권창훈(21·수원)이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기성용과 이재성(23·전북) 조합이 나설 수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나날이 슈틸리케 감독의 신뢰를 쌓아가는 정우영(26·빗셀고베)이 나서 공수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비는 최근 소속팀에서 선발 출전하는 김진수(23·호펜하임)가 왼쪽을 맡고, 김영권(25·광저우 헝다)과 곽태휘(34·알힐랄)가 중앙에서 든든한 벽을 쌓는다. 장현수(24·광저우 푸리)가 오른쪽에서 미얀마의 공격을 차단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측면을 파고들어 득점에 몰꼬를 더 줄 계획이다.

이번 경기가 끝나면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김승규(25·울산)가 골키퍼 장갑을 끼 것으로 보인다. G조에서 4전 전승으로 1위에 올라있는 한국은 오는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미얀마를 상대로 5승 사냥에 나선다.

슈틸리케호는 미얀마 경기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선취 득점을 올려 대량 득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러 월드컵 개최, 투표 전 결정' 후폭풍... 네덜란드·벨기에 등 경쟁국 소송 검토

러시아의 2018 월드컵 유치가 투표 전에 미리 결정됐다는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인터뷰에 당시 유치 경쟁에 참가했던 후보 국가들이 격분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축구협회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가 사전에 결정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최

경쟁에 뛰어들어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데 케르스메커 벨기에 축구회장은 "네덜란드 축구협회와 협의해 FIFA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로펌에 문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2018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1000만 유로(약 124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당시 개최 경쟁에 뛰어들었던 영국 축구협회도 FIFA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라터 회장은 러시아 타스통신과

의 인터뷰에서 "FIFA 지도부가 개최지 선정 투표 전에 2018년 월드컵은 러시아, 2022년 월드컵은 미국에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카타르 지지로 돌아서면서 미국이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출신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김은아·선화 자매 SK 이적

무안출신의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김은아(왼쪽)·선화(오른쪽) 자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SK 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김은아(27)와 김선화(24)를 6일자로 FA 선수로 공시했고 SK는 김은아, 김선화 자매 영입에 원칙적으로 합의, 세부적인 조율만 남긴 상태다.

SK 관계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 행사에서 "김은아, 김선화 영입에 대해 조건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다음 주 정도에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아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올해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



(MVP)로 꼽히는 등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두루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다. 동생 김선화는 언니와 함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둘은 '핸드볼 국가대표 자매'로 이름을 날렸다.

SK는 김은아와 김선화의 이전 소속팀 인천시청에 두 선수의 연봉 100%를 보상 금액으로 내주게 된다. /연합뉴스

남핸드볼, 5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시동'

2차 지역예선 출전 위해 출국

윤경신 감독이 이끄는 남자핸드볼 국가대표팀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 출전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한국 남자 핸드볼은 14일부터 2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올림픽 아시아지

역예선에 출전, 5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대회 우승국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2.3위는 대륙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들이 모여 벌이는 최종 예선 출전 자격을 얻는다. 바레인, 이라크, 중국, 호주와 A조에 편성된 한국은 15일 오후 11시 이라크와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투수 최현정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캠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운 KIA 내야수 이인행과 투수 최현정이다.

이인행(24)과 최현정(23)에게는 집이 낯설다.

지난 9월20일 두 사람은 애리조나 교육리그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10월22일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28일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행선지는 일본 오키나와.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된 마무리 캠프였다.

미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9월부터 '캠프 모드'다. 시차·날씨에 적응하느라, 집 떠나서 훈련을 하느라 몸은 고되다. 그러나 야구가 재미있다는 두 사람이다.

이인행은 SK와 구성된 교육리그 연합팀에서 유일하게 홈런을 때려냈다. 10경기 37타수 13안타, 0.351의 타율로 팀 내 타격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팔꿈치 수술 뒤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지난해

집보다 즐거운 캠프

9월부터 이어진 캠프서 자신감 '차곡차곡'

가을과는 다른 행보다.

이인행은 "교육리그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빠르고 변화가 다양한 공들을 많이 봤고, 거기에 따라 공을 맞추는 대처법도 배우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예비역'으로 보낸 첫 시즌. 실수도 많았고 아쉬움도 크지만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부상 없이 두 달 여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이인행의 우선 목표다.

이인행은 "부상 없이 캠프를 끝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고 몸도 좋다. 부상 없이 훈련에만 집중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성숙해진 것 같다. 마무리 캠프를 잘 마치면 내년이 더 기대될 것 같다. 스프링 캠프, 시범경기까지 단계별로 잘 해내서 2016시즌을 기분 좋게 맞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야수 이인행

고 있다. 집안 사정으로 군면제를 받은 최현정의 바깥은 지금 분위기를 이어 내년 시즌 1군에서 당당히 야구를 하는 것이다.

최현정은 "올 시즌에는 마음이 많이 급했다. 그러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마운드에서 생각도 많았다. 부상까지 당해 한 달 넘게 쉬었다. 뭐가 부족했고 뭐가 문제인지 잘 알았으니 이번 캠프에서 그 점을 보완해 1군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 성장세를 보인 포수 이흥구는 "지난해 가을에는 경기장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웃음). 교육리그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서 마무리 캠프도 잘 치르고 시즌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흥구에게 자신감과 야구의 즐거움을 안겨줬던 '긴 캠프'. 이번에는 이인행과 최현정이 도약을 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